

국내보험시장규모 세계 7위

우리나라의 보험시장 규모가 세계 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스위스 재보험이 2005년 세계 보험시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수입보험료는 미화 829억 달러로 세계 7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한단계 상승했다. 1위는 1조1천429억달러를 기록한 미국이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일본(4천765억달러), 영국(3천2억달러), 프랑스(2천222억달러), 독일(1천973억달러), 이탈리아(1천392억달러) 등의 순이었다. 국민 1인당 보험료는 한국이 1천706달러로 세계 22위였다. 스위스(5천558달러), 영국(4천599달러), 아일랜드(4천144달러)가 1~3위에 올랐다. 세계 보험시장 규모는 3조4천257억달러로 전년보다 2.5% 성장했다. /연합뉴스

현대삼호중 자체 기상대 운영

작업조건 예측... 생산성 높여

영양군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이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을 구축, 기상대를 운영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삼호중은 2005년 5월 AWS를 가동해 온도·습도·풍향·풍속·강수·기압 등 각종 기상정보를 분석한 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육내의 작업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특히 케인팅, 선박의 시운전 등은 AWS 분석자료에 의해 좌우될 때가 많다. 선박의 외부도장을 할 경우 기상예측에 따른 인원배치, 작업시간 배정은 원기질 감과도 직결된다. 또 습도·집중호우 등 현장 작업조건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져 건조선박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삼호중은 태풍 '에위니아'가 호남 서해안에 상륙한 지난 10일 AWS를 통해 외부작업을 중단, 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했다. /영남=김한민기자 hnkim@

중동전운 고조... 두바이油 배럴당 70달러 돌파 이어 연일 高↑高↑

산업계 '유가 폭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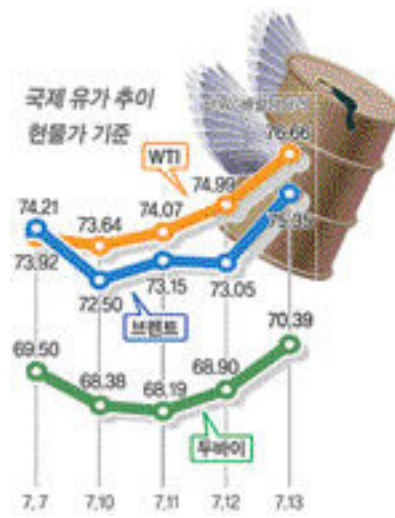
유화업계 영업이익 반토막·항공사 노선 감축
비상 경영체제 가동에도 대책없어 발만 동동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중동지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입원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산의 기준유가인 두바이유가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한 뒤 이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환율, 원자재값 인상과 함께 사상 최고의 유가라는 악재에 직면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기업들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와 비용을 줄이는 등 각종 교육책을 내놓으며 상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고유가로 인한 전체적인 비용 상승을 막을 만한 뾰족한 대

책은 없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고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화섬업계는 벤젠 등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밸런스를 예의주시하면서 원자재 구매선을 다양화하고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석유화학업계는 설비증설과 맞물린 공급과잉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고유가에 따른 원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일부 회사의 경우 영업이익이 작년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등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LG화학의 경우 2분기에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26.6% 증가한 2조2천255억

을 기록한 반면 영업이익은 43.9% 감소한 480억원으로, 상반기 전세로 볼 때 영업이익이 사실상 반토막 났다. 항공사들도 연료비 비중이 매출원가의 2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가상승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항공사들은 최근 유가 고공행진에 대처하기 위해 비수의 노선 폐지 및 감축, 유류 사용을 최소화하는 항공기 경제운항 시행 등 비상경영 대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대한항공은 연간 300억원, 아시아나는 15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가격이 어려운 경영환경과 노조의 파업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세계적으로 자동차 구입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고심하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고유가 사태와 관련해 연구, 생산, 판매 등 사업부문별로 급하지 않은 투자와 지출을 자제하고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림경영을 펼치고 있다. 유가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전자업종도 고유가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의 경우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LCD, 휴대전화 등을 항공편으로 수출하



완도 약산농협 주부대학 개설
지난해 전남 최초로 지역문화복지센터를 개설한 완도군 약산농협(조합장 신광일)이 최근 금일지점에서 3기 주부대학을 열었다. 주부대학은 8월23일까지 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교실, 미용강좌 등 강의를 실시한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韓銀, 유가 폭등에 콜금리 인상 고심

고유가 지속면 5%성장 무산 경기부양 금리 낮춰야 할 판

경기의 지속적인 상승을 확인하며 물가압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콜금리를 인상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온 한국은행이 유가 폭등이라는 돌발악재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중동위기에 의한 유가 폭등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대세로 굳어질 경우 한은이 예측한 올해 5% 성장률 달성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콜금리 추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16일 한은과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서부

텍사스중질유는 8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상반기중 원유도입단가는 배럴당 61.1달러를 기록했다. 산술적으로 따져 하반기에 배럴당 65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한은의 예측이 빗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월 한달만 따져볼 때 60달러 중반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추가인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경기부양을 위해 콜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현재의 유가불안 양상이 다음달초까지 이어진다면 8월 금통위에서 콜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연합뉴스

세계 조선업 경쟁력

韓-中-日로 재편중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에 힘입어 전세계 조선·해운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 조선업의 순위가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재편되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중국선박공업경제연구소(CSERC)는 중국선박보를 통해 발표한 '한·중·일 조선산업 경쟁력 비교'에서 지난해부터 일본 조선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국, 중국은 확장세를 거듭해 현재 3대 조선국의 순위가 일본, 한국, 중국에서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 조선의 경우 이미 쇠락기에 접어들 유럽이나 후성속기에 접어들 일본과 다르며, 이제 막 성장기에 진입한 중국과 달리 후성장기에 놓여 있어 자원, 기술, 자본 측면에서 모두 우위이며 가장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조선은 최근 들어 인적 자원 위위 상실과 강제 등 원자재 부족 및 가격 상승, 원화 가치 상승 등의 요인으로 경쟁력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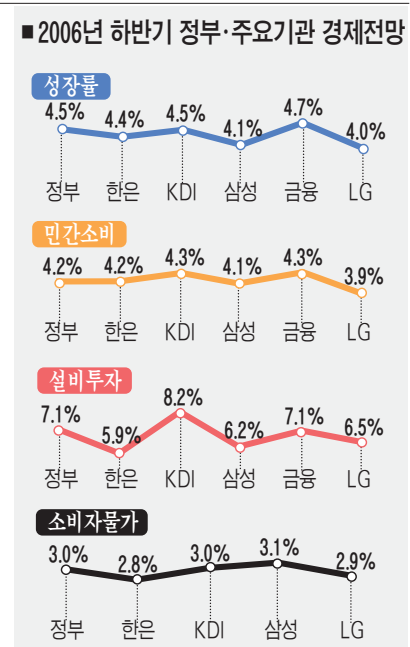
올 GDP 성장률 5.3%→5.1%로 낮춰

KDI, 대외여건 악화 반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제유가 상승 등 최근의 대외여건 악화를 반영,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KDI는 최근 통화 조정을 보이는 경기가 급속히 하강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며 거시 재정정책은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KDI는 16일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분기 전망 때 제시한 5.3%에서 5.1%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전망치와 같은 것으로, KDI는 1·4분기의 전망 당시보다 상향 조정된 국제유가와 원화가치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상반기에는 높은 수출 증가세와 민간소비·설비투자 등 내수부문 회복으로 5%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민간소비 증가세도 제한되면서 4%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3·4분기 4.8%, 4·4분기 4.1%로 애초 전망 때의 5.1%와 4.4%에서 0.3%포인트씩 낮췄다. KDI는 하반기 국내 경기가 유가 및 세계경기 등 대외여건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여 향후 대외여건 추이에 따라 성장속도 조정폭이 정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도 애초의 8.4%에서 7.8%로 낮추고, 건설투자도 증가율 전망을 애초의 1.6%에서 0.8%로 낮춰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6%로 전망했으나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내수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인해 2% 후반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189회)		팝콘복권 (제12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등위	당첨금액(원)
081432353745	28	1등	10억
등 위	당첨금(원)	2등	5억원
1등	6개 숫자 일치	3등	1천만원
	3,461,775,100	4등	1백만원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등	1만원
	52,451,138	6등	2천원
3등	5개 숫자 일치	7등	1천원
	1,595,289		
4등	4개 숫자 일치		
	66,327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광주전남 이용기능장 1호

30만원부터 **가** 시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이수재원장** 직점시술관리

심는가발 완성!!

대신가발님맞춤해술원

소

재혼, 이쁨값 하네!

(주)생복출판

(061) 527-3388